

## 한국불교사에서의 『유마경(維摩經)』의 지위\*

이 회재\*\*

### <국문초록>

유마경은 출가위주의 불교를 벗어나 재가에서도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하며 출가와 재가가 대립된 세계일 수 없음을 말해준다.

원효의 회통사상은 재가불교의 위상을 결코 낮게 보지 않고 승속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유마거사의 불이정신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유마경의 주석서인 『유마경종요(維摩經宗要)』가 조선시대까지 존재하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효의 생애에서 보여준 보살정신이란 유마거사의 보살행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석굴암의 불상가운데서도 『유마경』의 문질품(問疾品)의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병들어 웅크리고 있는 유마상이다. 신라에서 유마경이 불교의 주요사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것이 석굴암의 조각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효의 화쟁사상을 높이 평가한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은 고구려에서 백제로 귀화한 보덕화상에게서 유마경을 배웠으며 보조국사 지눌도 유마경을 중요경전으로 인식했다. 조선의 17세기에 유마경이 출간되었는데 당시 발원문에서는 유마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위로는 나라의 임금과 육

\* 이 논문은 2009년도 광주대학교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동양철학 전공)

도중생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한 뜻이었음을 볼 때 단지 사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유마경에 대한 영험을 알게 한다.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진 추사 김정희의 유마경에 대한 이해도 한국에서의 유마경의 지위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의 그림 “불이선란(不二禪蘭)”은 바로 그의 유마경에 대한 선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1874(同治 13)년에 한글 목판본의 『유마경』이 나온다. 이 경전은 선암 사에도 있지만 최근(2008년) 서울의 은평구에서 금성당(무속인들의 공간)을 발굴조사하면서 역시 한글판 같은 『유마경』 2책이 나왔다. 무속에서 독송하는 것은 주술적인 영험이 있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한글 『유마경』이 한 축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까지 유마경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는 민중들이 유마거사와 같은 재산과 장수 그리고 세속적 행복을 또한 염원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유마경의 위치는 원효에서 한용운까지 사회참여적 보살불교의 경전으로서 중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유마경, 불이사상, 원효, 보조, 김정희, 재가불교, 한용운

## 1. 유마경의 세계

대승불교의 출현은 불교사 속에서 불교사상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한 사건이다. 출가수행자 중심의 엄격한 계율지상주의라기 보다는 재가의 새로운 신앙실천운동과 보살의 정신은 대승불교의 출현의 의의를 말해준다.

재가불자인 유마거사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유마경』은 재가신앙의 사상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며, 반야의 공사상을 구현하고 대승적 자비의 바탕에서 불이적(不二的)인 실천의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경전이다.

『유마경』의 범본명은 Vimalakīrti-nirdeśa이고 이 가운데 Vimalakīrti를 한역에서는 ‘유마라힐(維摩羅詰)’, ‘비마라힐리제(毘摩羅詰利帝)’, ‘유마힐(維摩詰)’, 혹은 간단히 ‘유마’라고 음사하였다. 의역하여 ‘이구칭(離垢稱)’, ‘무구칭(無垢稱)’, 혹은 ‘정명(淨名)’ 등으로 칭하기도 했다. 『유마경』의 성립 연대에 대해 대략 기원전 1-2세기로 추정된다.

중국의 번역본으로 현존하는 것은 지겸(支謙)의 『유마힐경』 2권, 구마라집의 『유마힐소설경』 3권, 현장(玄奘)의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 6권이 있다. 이 번역본 가운데 실제로 『유마경』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은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 역이 유포되고 나서이다. 이 번역이 나타난 후 『유마경』에 대해 많은 중국인들이 이 원전을 연구하였다. 그 중에도 승조는 『유마힐소설경주(維摩詰所說經注)』라는 주석서를 썼다. 이 번역서가 하나의 모범이 되고 후세에 오래 사용되기에 이르렀다.<sup>1)</sup> 한역서는 있지만 그동안 산스크리트 원본은 찾을 수 없다가, 1999년 티베트에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원전이 발견되었다.<sup>2)</sup>

유마경의 내용은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이 중심이 되고 있다. 유마거사는 보살도인 육바라밀(六婆羅蜜)을 철저히 실천하는 재가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재산과 재물이 한량없이 많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보시하고, 속가에 있으면서도 청정한 계율을 지녀 부도덕한 이들을 이끌었으며, 인욕으로 성내는 이들을 보살렸고, 정진으로 모든 게으른 이들을 이끌었으며, 고요한 마음으로 선정을 닦음으로 모든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을 이끌었고, 지혜로 무지한 이들로부터 벗어났지만 함께 감싸 안고 살았다.

유마거사와 대화하는 인물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출가한 고승들인데, 속인이면서 병든 유마거사와 대화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중요내용으로 각색되어있다. 여기에서 주요 화두는 불이(不

1) 이대성, 『유마경연구』, 동국대 대학원, 1999.

2)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발굴한 조사에 참여했던 다카하시(高橋尙夫)씨에 의하면, 『지광명장엄경(智光明莊嚴經)』을 때마침 열람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유마경 12장’이란 제목이 적혀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999년 7월말부터 8월 초순에 걸쳐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드디어 발견이 이뤄진 것이다. 『유마경』 원전 발견으로부터 발표까지 1년 반이란 시간이 소요되었다.

二)적 공(空)사상이다.

출가수행자인 고승들과 재가자인 유마거사 간에 오고간 문답을 실례로 들자면, 먼저 유마거사의 요청에 의해 고승들이 진리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사리불의 경우 좌선에 있어 몸과 마음의 근거로 작용하며 집착하는 이 현실의 미혹 속에 있으면서 능히 그 불심의 작용을 거두고 집착을 버리는 것이 좌선이 된다는 것으로 유(有)도 무(無)도 없고 얽매는 일도 없는 공(空)의 경지가 참된 좌선이라고 설한다. 목건련의 경우 설법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법을 행한다는 입장을 초월하여 일체의 집착을 떠난 공의 실천으로 무심 속에 있으면서 유심하게 설해야 한다는 것, 가섭의 경우 걸식에 관한 것으로 두타가 단순히 자기 혼자만을 위한 수행방법임에 그친다면 그 참뜻은 망각되는 것이니 자타가 평등 진실할 수 있는 법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의 경지를 이야기한다. 수보리의 경우 공(空)이 고정화했을 때 그것은 유(有)가 되니 공(空)도 또한 공(空)한 것으로 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空)은 집착하지 않음을 통해 진실한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바리의 경우 계율은 형식이 아닌 마음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계율은 공(空)의 정신에게 지켜져야 하고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라훤라의 경우 출가에 대한 것을 진실한 구도자로서 출가해서 모든 공덕을 제거할 때 그것이 진실한 출가라고 한다. 부루나와 가천연 그리고 아나올과 아난과 같은 기라성 같은 불제자들이 공의 작용에 대해 유마거사에게 이야기한다.

유마경을 연구하는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유마경의 사상은 대승불교의 공(空)과 불이(不二) 그리고 반야사상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선(禪)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출가자 중심의 불교를 강조하는 한국불교에서 재가불교 혹은 거사불교를 중시하는 전통이 바로 유마경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필자는 다른 경전과 달리 현실과 이상을 둘로 보지 않는 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유마경과 그 사상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붓다의 십대제자를 비롯한 저명한 고승들은

유마거사의 진리에 대한 침묵으로부터 진정한 불이(不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된다는 내용 자체가 출가위주의 불교를 벗어나 재가에서도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하며 출가와 재가가 대립된 세계일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유마경에 대한 연구는 거의 경전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들이었을 뿐 유마경의 사상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sup>3)</sup> 본 논문은 신라의 원효 이래로 일제하의 한용운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전통은 재가를 도외시하지 않는 대승보살사상을 잘 표현한 유마경에 대해 어떻게 보았는가를 주목하여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 2. 시대별 유마경의 지위

### 1) 유마경에 대한 관심

한국에서 유마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석 작업을 한 인물은 원효(元曉, 617-686)가 최초이다. 『유마경종요(維摩經宗要)』 1권과 『유마경약찬(維摩經略贊)』 7권이 그의 저술이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선시대 세조 때 『유마경종요(維摩經宗要)』를 유구국(현재의 오키나와)에 보내주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초까지 이 저술은 남아 있었다.<sup>4)</sup>

3) 김두식, 「유마경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65; 강혜원, 「달마선에 나타난 유마의不二사상」, 『韓國佛敎學』 26輯, 1995; 이대성, 「유마경의 禪사상」, 『韓國佛敎學』 26輯, 한국불교학회, 1995; 김용환, 「유마의 보살실천론과 생태위기극복」, 『국민윤리연구』 37號, 한국국민윤리학회, 1997; 이선경, 「극양식으로 본 유마경의 등장인물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이대성, 「유마경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재수, 「유마경에 나타난 사회사상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0; 정준기, 「유마경의 반야사상을 의용한 신회의 禪사상」, 『韓國佛敎學』 38輯, 2004.

4) 『조선왕조실록』, 세조 43권. 13/08/14(정미) / 태평관에 있는 유구국 사신에게 물품을

원효의 뒤를 이어 경흥(憬興; 생몰년대 미상)의 경우도 『무구칭경소(無垢稱經疏)』 6권을 저술했다고 하나 역시 현존하지 않는다. 경흥은 미륵, 아미타 등의 정토사상과 유식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몰두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신라불교의 사상계가 요구하는 바를 반영한 것이며, 유마경 관련 주석도 회통불교의 면모를 보여준다.

둔륜(遁倫; 생몰년대 미상)의 『유마경요간(維摩經料簡)』 1권도 있다고 하나 역시 현존하지는 않는다.<sup>5)</sup> 그럼에도 우리는 신라의 중요한 불교학자들이 『유마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음을 알 수 있다.

원효대사의 회통사상은 재가불교의 위상을 결코 낮게 보지 않고 승속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유마거사의 불이정신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효는 요석공주와 결혼하여 설총(薛聰, 650-740)을 낳았고,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 혹은 복성거사(卜性居士)<sup>6)</sup>로 자처하고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무애행을 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유마경의 주석서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의 생애에서 보여준 보살정신이란 유마거사의 보살행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원효의 별호는 ‘새부(塞部)’라고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필자는 우바새를 이룬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sup>7)</sup>

---

하사하다... 그대 보낸 불서는 『성도기(成道記)』·『법화경(法華經)』·『번역명의(翻譯名義)』·『기신론(起信論)』·『영가집(永嘉集)』·『대비심경(大悲心經)』·『원각경(圓覺經)』·『사교의(四教儀)』·『능엄의해(楞嚴義海)』·『도덕경(道德經)』·『법수(法數)』·『함허당원각경(涵虛堂圓覺經)』·『금강경(金剛經)』·『아부종경(治父宗鏡)』·『능엄회해(楞嚴會解)』·『고봉화상선요(高峯和尚禪要)』·『진실주집(眞實珠集)』·『능엄경(楞嚴經)』·『벽암록(碧巖錄)』·『수륙문(水陸文)』·『유마유향경(維摩詰經)』·『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능가경소(楞伽經疏)』·『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유마경종요(維摩經宗要)』·『법경론(法鏡論)』·『관무량수경의기(觀無量壽經義記)』

- 5)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권1.(대정장 55. 1170a 쪽. “宗要一卷 元曉述, 料簡一卷 遁倫述”).
- 6)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卷19. 「小性居士贊并書」, ‘剃而髡則元曉大師 髮而巾則小性居士’.
- 7) 이에 관해서 김영태 교수는 원효의 한글 이름인 새벽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望月信享의 우바새의 해석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김영태, 「원효의 신라말 이름 ‘새부’에 대해서」, 『불교사상사론』, 민족사, 145-157쪽. 望月信享, 『起信論之研究』, 金尾文淵堂, 1922. 227쪽.

“성사는 그 바가지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이라야 단번에 생사를 벗어나리라’는 구절을 따서 무애(無碍)라 이름 짓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그 도구를 가지고 방방곳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읊고 돌아왔으므로 가난뱅이 코흘리개 아이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법화(法化)가 컸던 결과였다.”<sup>8)</sup>

원효의 무애행은 다름 아닌 보살행이며 대중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유마경의 정신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유마경』에서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술집이나 도박장과 같은 계율에서 금지하는 장소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효의 무애행은 유마거사와 꽤를 같이 하는 데 유마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십지어 바둑과 장기 놀이하는 곳에 이르러서도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도한다. ……여러 도시를 노닐면서 중생들을 요익케 하여서, 바른 법을 다스리는데 들어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호하여 주고,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대승의 법으로써 인도하여 주며, 여러 학당에 들어가서는 동몽(童蒙)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일깨워 준다. 여러 음사(淫舍)에 들어가서는 음욕의 허물을 보여 주고, 여러 술집에 들어가서는 능히 자기의 뜻을 세운다.”<sup>9)</sup>

석굴암 불상조성을 보면 석굴암의 감실에 유마거사의 상이 있다. 두건을 쓰고 웅크린 자세로 탁자에 기댄 모습인데, 환자가 손에 커다란 베개를 끼고 문수보살과 문답하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감실에 있는 보살상은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금강장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인데 유마거사는 그중에 있다. 문수보살과 대칭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아 『유마경』의 문수와의 대화에 근거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마의 모습이 노인의 고통스런 표정과 웅크린 자세

8) 『三國遺事』, 第五, ‘元曉不羈’.

9) 이영무 역해, 『유마경강설』, 『방편품』, 월인출판사, 1989, 93-94쪽. (大正藏 卷14. 539 上면)



에서 나타나는 병자로서 『유마경』의 문병의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로보아 신라시대에 이미 유마경이 불교의 주요사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것이 원효의 불이사상이나 석굴암과 같은 주문 화제에도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석굴암의 본존상에 있는 10대 제자상은 유마경의 제자품에 나와

있는 제자와 일치하며, 상부의 감실에 중앙에 서로 마주보게 한 것이 문수보살과 유마거사의 문답장면이라는 것은 이 석굴암의 설계가 유마변상(維摩變相)인 셈이다.<sup>10)</sup> 신라인들이 유마경의 사상을 익히 소화하여 석굴암에 표현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해인사의 일주문 앞에 있는 895년에 건립된 길상탑(吉祥塔) 안에 넣은 법보(法寶) 기록에도 유마경(淨名經)이 들어있다.<sup>11)</sup> 신라시대의 유마경의 위치를 가늠하는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다.

## 2) 고려시대의 유마경

원효(元曉)의 화쟁사상을 높이 평가한 대각국사 의천(義天)은 원효대사가 고구려에서 백제로 귀화한 보덕화상에게서 『유마경』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2)</sup> 의천이 유독 원효를 추앙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논쟁을

10) 최완수, 『석굴암, 중생의 해탈 염원 담긴 ‘대승불교의 꽃’』, 한국경제, 2009.9.28.

11) 『百城山寺前臺 吉祥塔中納 法際記』, 『寧二旃蒙年百城山寺前臺 吉祥塔中納 法際記』, 『無垢淨大陀羅尼經 一卷 法花經一部 淨名經一部』, 『隨求即得大自在陀羅尼金剛般若經 一卷 花嚴二佛』, 『名號 卅類神衆 列名 威光所遇佛友名 善財所携五十五』, 『善友 列名 五十三佛號 十大弟子德號 七處』, 『九會卅九品列名 兼卅心十地名 十卷金光明』, 『經卅一品 列名 大般若經十六會二百七十八品 列名』, 『佛經雜語 花嚴性起 卅篇 眞言集錄 二卷』, 『佛舍利 一軀 又二枚 釋迦如來涅槃銅畫像 一』, 『瑠璃泥小塔 九十九 又七十七 每塔納眞言』, 『大般涅槃經 十七品 列名 圓心般若經』.

화해시키고 증생과 함께 삶을 살았던 보살행에 있었다. 원효의 위상과 더불어 유마경의 불이사상도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의천의 사상은 선교일치를 포함해서 모든 종파를 회통하는 것이고, 다음은 유교의 도가의 가르침도 궁극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세간과 출세간에 대해 둘로 보는 입장을 지양하여 불이(不二)의 관점으로 보았다. 그가 왕자로서 나라에 대한 각별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을 떠나야할 속세로 본 것이 아니라 출세간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은 유마경사의 불이정신 그리고 원효의 화쟁사상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보조국사 지눌은 『화엄론절요』에서 불교의 주요 경전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1. 『소승계경(小乘戒經)』 2. 『보살계(菩薩戒)』 3. 『반야교(般若教)』 4. 『해심밀경(解深密經)』 5. 『능가경(楞伽經)』 6. 『유마경(維摩經)』 (以會融染淨二見 現不思議爲宗) 7. 『법화경(法華經)』 8. 『대집경(大集經)』 9. 『열반경(涅槃經)』”

여기서 『유마경』이 염(染), 정(淨)의 두 견해를 회통하여 불가사의한 뜻을 나타내는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화엄사상과 유마경의 사상은 10가지에 있어서 다르고 한 가지는 같다고 했다. 화엄경과 유마경이 같은 것은 입도방편(入道方便)이 같다. 유마경에 말하기를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일체법에 구하는 바가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몸의 실상을 관함에 있어 부처님을 관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내가 여래를 관하니 과거에 오신 것도 아니고 미래에 오실 것도 아니며 지금 머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처음에 지혜의 문을 관하는 것으로 대략 입도

12) 『大覺國師文集』 卷17, 8쪽. 『孤大山景福寺飛來方丈禮普德聖師影』 ‘元曉義湘嘗在諸下親稟涅槃維摩等經’

행상(入道行相)과 같다.’<sup>13)</sup>라고 하여 공의 정신을 유마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마거사를 정명거사(淨名居士)라고 칭하고 불가사의한 신통변화를 보여서 이승(二乘)을 돌아서게 하고 생사에 처하여서 몸에 병을 나타내고 염정(染淨)이 둘이 아님을 알게하고 보살의 대자비를 병으로 나타내어 보살이 불이(不二)의 문을 자세히 말하도록 했다고 찬탄하고 있다.<sup>14)</sup>

유마경을 따로 주석하지는 않았지만 유마경의 위상을 두 견해를 회통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에 있어서 특이점은 그가 세속적인 명리를 버리고 철저하게 정혜결사를 통해 고려 불교를 쇄신시켰지만, 교학에 있어서는 고려의 실정에 알맞은 정혜쌍수, 선교일치, 혹은 돈오점수를 주장했다.

특히 화엄론에 있어서 재가 거사였던 이통현(李通玄, 634-730) 장자의 이론을 원용하여 그의 회통불교의 틀에 수용하고 있다. 이통현이 생존하던 당나라에서는 여러 불교종파가 번성했지만 재가불교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그는 오히려 『주역』과 『노자』등의 중국 전통사상의 교양을 바탕으로 화엄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sup>15)</sup> 보조국사가 비록 재가불자이지만 화엄의 이치를 오히려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 이통현 장자의 사상을 통해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을 정립했다는 것은 거사불교에 대한 긍정인 동시에 보조사상의 핵심인 유마의 불이사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진속불이의 정신을 보여준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는 하가산 보문사에서 대장경을 열람하다가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 여래출현품 “여래의 지혜도 이와 같아서 중생의 몸에 갖추어진 것이

13) 普照, 知訥, 『華嚴論節要』, 33쪽. ‘一入道方便同者 經云夫求法者 於一切法 應無所求 乃至觀身實相觀佛亦然 我觀如來前際不來 後際不去 今即無住等 是初觀智門 略同於入道行相’

14) 普照, 知訥, 『華嚴論節要』, 33쪽. ‘此維摩經 以淨名居士 現小許不思議之通變 令二乘廻心 又處於生死現身有疾 令知染淨無二 又表菩薩大悲有疾 菩薩具陳不二之門’

15) 임상희, 『이통현과 중국의 전통사상』, 『한국불교학』 50집, 한국불교학회, 2008, 464쪽.

다. 다만 범부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如來智慧 亦復如是 具足在於衆生身中 但諸凡夫 不知不覺)”<sup>16)</sup>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여래의 지혜가 중생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생의 몸 안에 있는 것인데 이를 범부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깨달음은 유마거사가 재가에 있으면서 보살정신으로 중생의 삶의 중시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자기 마음 안의 모든 부처님의 보광명지로서 일체 중생을 비추면 중생의 상이 곧 여래상이며, 중생의 말이 곧 여래의 말이며 중생의 마음이 곧 여래의 마음이며, 생산업을 다스림과 공학의 기예가 다 이 여래보광명지(如來普光明智)의 운용하는 상이고 작용이니 도무지 하나일 뿐 다른 것이 없다. 다만 중생의 자기 업을 따라 스스로 속아서 범부, 성인, 나와 남, 인(因)과 과(果), 물들과 깨끗함, 성품과 상(相) 등을 보는 것이며 스스로 분별을 내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일 뿐 보광명지(普光明智)가 짐짓 지음이 아니다.”<sup>17)</sup>

고려대장경에도 『유마경』은 편집되었음은 물론이다.<sup>18)</sup> 승조(僧肇)가 주석을 달아 놓은 유마경에 당나라 도액(道液)이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펴낸 것을 대각국사의 의천의 『신편제종교자총록』에 수록된 4권 중 권3, 4의 남아있는 1책이다. 각 권의 끝에 고려 헌종 1년(1095)에 흥왕사에서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의천이 간행한 속장경 판본<sup>19)</sup>을 통해 고려시대에서도 유마경은 주요 경전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거사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

16) 知訥, 『圓頓成佛論』에서 또한 같은 「여래출현품」 곧 “自己無明分別之種 本是諸佛不動智也”도 인용된다.

17) 知訥, 『圓頓成佛論』, 200쪽. “自心內諸佛普光明智 普照一切衆生 則衆生相卽如來相 衆生語卽如來語 衆生心卽如來心 乃至治生產業 工巧技藝 皆能是如來普光明智 運爲之相 都無別異也 但是中生 自業自誑 自見是凡是聖... 自生退屈非有普光明智 故作如是”

18) 해인사의 보관된 『유마힐소설경』은 조선시대에도 인행(印行)된다.

19) 세조 때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찍어낸 『금강반야경소개현초』와 비슷하여 조선 세조때 속장경을 보고 다시 새겨 찍어낸 판본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헌이나 이규보에게서는 오히려 재가불교를 강조하는 면보다는 재가자로서 출가자와 같은 수행을 동경하는 면이 있으며 그들이 유마거사를 수행의 모델로 삼은 것 같지는 않다.<sup>20)</sup>

오히려 출가자이면서 재가불자의 사상이라도 그것이 진실이 있을 때 수용했던 보조국사 지눌에게서 혹은 원효의 회통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대각국사 의천에게서 유마거사의 불이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 4) 조선시대 유마경의 간행과 추사의 불이

조선시대는 주지하듯 억불의 시대였기 때문에 불교의 위상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상식과는 달리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유마경은 계속해서 발간되고 거사불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7세기(1632년)의 유마경 발간 기록 가운데 낙안 동화사에서 사경한 유마경이 있다. 이 유마경을 사경하면서 발원한 글은 다음과 같다.

“오로지 원컨대 불초한 사람이 줄필로 『부사의경(不思義經)』 한권을 서사합니다. 공덕으로 위로는 서울의 낙양성 가운데 금란방의 구중궁궐 안에 사시는 주상 삼전의 만세를 빌고 백성을 구휼하는 무강한 은혜에 보답하나다. 두 번 허공 법계에 가득한 육도 사생들이 삼계를 벗어나 정도에 태어나고 친히 무량수불을 뵈기 발원합니다. 돈오무생(頓悟無生)자 성상 즉위 12년(1633) 사미 원기 삼가 씀”<sup>21)</sup>

이 사경문은 매우 정제된 해서로 쓰여 있다. 조선시대 임란 이후에 쓴 사경의 전형적인 전범을 잘 보이는 수작이다. 이 사경기(寫經記)를 볼 때

20) 신규탁, 『이자현의 선사상』,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4; 주호찬, 『이규보의 시에 나타난 불교인식의 추이』, 『한문학보』 14호, 우리한문학회, 2006; 이애희, 『이자현의 능엄선 사상』, 『공자학』 14집, 한국공자학회, 2007 등이 관련논문이다.

21) 願文: 唯願不肖拙筆書寫不思議經一卷。功德上報於京畿洛陽城中部錦蘭坊九重宮裏居位 主 上三殿下萬歲 恤民無疆之恩 兩次及盡虛空遍法界六趣四生 離於三有生於淨土 親見 無量壽佛 頓悟無生者 時維聖上即位12年癸酉(1633)兩辰沙彌源琪謹書

조선시대의 스님이 유마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위로는 나라의 임금과 육도중생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한 뜻이었음을 볼 때 유마경에 대한 영험을 알게 한다.

1681에 중국의 불서를 실은 배가 전라도 임자도 근처에 도착했고 이때 가져온 책 중 몇 권을 왕에게 받쳤는데 왕은 그 책들 대부분을 개원사(開元寺)<sup>22)</sup>에 하사했다. 이 집서(集書)속에 있던, 유마경을 바탕으로 새로 경전을 간행하면서 초원거사(椒園居士) 이충익(李忠翊, 1744-1816)은 주해를 첨가한다.<sup>23)</sup> 이충익은 25세에 불교에 심취하여 강화도의 마니산에 망월대에 암자를 짓고 스스로 폭포암 주인으로 자처하기도 했으며 스스로를 거사라고 했다.<sup>24)</sup> 이충익은 해인사에 보관되어있는 『유마힐경』 3권도 인행하여 읽고 다음과 같이 평했다.

“유마경은 넓고 깊어서 엿보고 가늠할 수 없다. 마치 유마거사가 방장에 높이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여러 큰 제자와 큰 보살들이 뒷걸음치고 나아가 문안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아! 기이하구나. 갑진년 늦은 봄에 호진우사(蠔津寓舍)에서 필사를 마치고 책 끝에 적는다.”<sup>25)</sup>

동사열전에 소개되고 있는 이침산(李枕山, 1827-?) 거사는 유마의 화신으로 알려질 정도로 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동사열전의 저자 범해는 그에게 준 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피나리 붓짐 속에 다른 건 없다 尺布行裝何所有  
다만 한 권의 금강경뿐 金剛一卷自家珍

22) 1926년 당시 팔도도총섭 벽암 각성에 의해 세워진 남한산성안의 절.

23) 모리스 쿠랑(Mourice Courant), 이희재 역,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eenne), 일조각, 1994, 652쪽.

이충익의 불교관에 대한 연구는 유호선의 『양명학자 이충익의 불교관 일고』, 『한국어문학연구』 48집이 있음.

24) 李令翊, 『信齋集』 권1. ‘構小庵於摩尼山望京臺瀑布下 自號瀑布庵主人’

25) 『椒園遺藁』 2책, 512쪽. ‘若維摩 汪濊不可窺測 如日擊大居士 高臥方丈 諸大弟子 諸菩薩 却步不任造問 吁可異也 時甲辰季春 在蠔津寓舍 書寫畢 因識卷末’

방거사의 선문답 곳곳에서 꽃피니 龐公事業頭頭顯  
그대는 필시 유마거사의 화신 應是維摩小化身

이 이침산 거사를 유마거사의 화신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이 거사는 실제로 전주 봉서사에서 유마경을 서사하여 불자들에게 주는 등 유마거사의 불이법을 실천하고자 하였다.<sup>26)</sup>

『유마힐경 직소(直疏)』<sup>27)</sup>는 1854년(철종 5) 칠월 보개산 성주암에서 발간되었다.<sup>28)</sup> 서문을 쓴 동화축전(東化竺典)은 1850년대까지 금강산의 건봉사에서 주석했던 선지식으로 1854년 쌍월 성활이 간행한 『유마힐소설경 통운직소』에 서문을 써서 경과 판각의 의의를 부각시켰다. 동화는 쌍월 성활(雙月 性瀾)이 간행한 『유마힐소설경』에도 서문을 쓰고 있다. 그는 함께 서발을 남긴 보월 혜소, 화은 호경 등과 쌍월 성활을 축으로 하여 교유관계를 맺었다. 이 책 가운데 화은 호경의 글에 “이 (유마)경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오랫동안 소와 주석이 없어서 학자들이 경전을 탐구하는데 자주 아득해져서 능히 그 끝을 규명하여 그 근원을 궁구하지 못하여 총림에서 병으로 여긴지 오래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발간 보급된 유마경 주석은 오늘날까지도 안진호의 번역에 의해 한국의 전형적인 유마경 해설서로 읽혀지고 있다.

경전발간은 아니지만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진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유마경에 대한 이해도 한국에서의 유마경의 지위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sup>29)</sup> 그의 그림 “불이선란(不二禪

26) 범해 찬, 김윤세 역, 『동사열전』, 광제원, 1991, 481쪽.

27) 이 책은 1674년 혜소(慧昭)에 발간되었고 이 책의 발문은 화은(華隱)이 쓴 것이 현존한다.

28) 序 崇禎紀元後 甲寅 四月 下泮 寶月堂 慧昭謹序 崇禎紀元後 四甲寅(1854) 下泮竺典盥水焚香 謹序 臥疇居士 邵彌書于桂髓樓 後秦釋僧肇述 跋; 無何翁 華隱 謹敬謹跋 刊記; 上之四年咸豐甲寅(1854) 仲夏新刊 江原道鐵原 寶蓋山 聖住庵 藏板

29) 그는 유마경이외에도 『금강경오가해』, 『능엄경』, 『능가경』, 『관음경』, 『화엄경』, 『법화경』 등을 읽었다. 또 선종서적으로도 『法苑珠林』 『宗鏡全部』 등을 읽었다. 그의 시에서도 ‘久惜維摩示病身’을 비롯해서 유마거사가 거주하는 비야성, 유마거사가 고의로 칭탁한 병, 유마과 문답한 문수보살, 유마의 목언과 불이문 등 시어와 시문과 서독 문집 전체에 산견된다고 말한다. 류호선, 『추사 김정희의 불교시 연구』, 『한국

蘭)”은 바로 유마경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난초 그림을 그리지 않은지 20년, 우연히 하늘의 본성을 그려냈구나. 문을 닫고 깊이깊이 찾아 드니, 이 경지가 바로 유마의 불이선(不二禪)일세.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강요한다면 마땅히 비야리성(毘耶離城)에 살던 유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이 사절하겠다. 만향”<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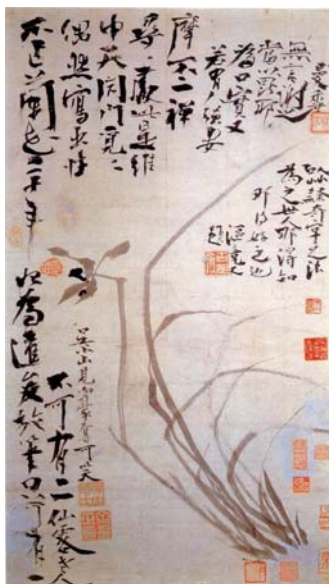
추사가 자기의 난초 그림의 화의를 불이선(不二禪)에 견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불이(不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제9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서 나온 말임은 물론이다.

유마거사의 질문에 대해 문수보살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말도 없고, 설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인식할 것도 없으니 일체의 문답을 떠나는 것이 절대 평등, 즉 불이(不二)의 경지에 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문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유마에게 물었다. 이 때 상황을 경(經)에서는,

“유마는 오직 침묵하여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유명한 ‘유마의 일묵(一默)’은 문수보살로 하여금 자신보다 유마거사가 한 수 위의 경지에 있음을 알게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불이(不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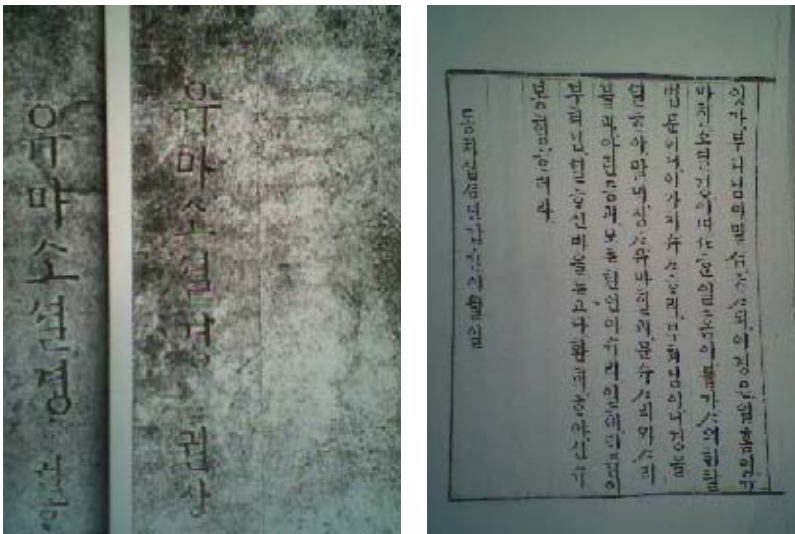


維摩不二禪蘭圖

불교학』 46집, 2006, 528-540쪽.

30) “不作蘭花二十年 偶然寫出性中天閉門覓覓尋尋處 此是維摩不二禪 若有人強要爲口實 又當以毘耶 無言謝之 曼香”

의 진정한 세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유마의 침묵을 굳이 표현하려 한 것이 추사가 그린 난초그림인 것이다. 추사는 단순한 그림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이미 『유마경』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예술적 삶속에 그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사의 애제자 허련(許鍊, 1809-1892)도 유마를 자처하여 이름을 유(維)라 했고, 호를 마힐이라고 한 것만 보아도 재가거사로서 유마의 위치가 조선후기의 한국의 예술가들에게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금성당의 무속인들이 사용했던 한글유마경]

한국에서의 유마경은 이처럼 출가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재가자들에게 있어서 중시된 경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는 19세기에 한글판 유마경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유마소설경』은 1874(同治 13년)년에 한글 목판본으로 발간된 『유마경』이다. 선암사에 소장된 『유마소설경』과 최근 은평구 아파트 개발단지에 남아있던 금성당이라는 무속인들의 공간을 발굴조사하면서 역시 한글판 『유마경』 2책이 나왔다. 주

로 주술적인 영험이 있다는 믿음에 따라 발간한 불서에 『유마경』이 한 축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민중들의 염원이 깨달음 이전에 유마거사와 같은 재산과 장수 그리고 세속적 행복을 또한 염원했음을 짐작한다.

이 판은 완역은 아니고 같은 단어를 다른 표기로 다섯 번 이상 하는 등<sup>31)</sup> 거칠기는 하지만 한자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 자음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아름다운 한글도 있다. 상권은 제2 「방편품」, 제4 「보살품」, 제5 「문수사리문질품」, 제6 「부사의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권은 제7 「관중생품」, 제8 「불도품」, 제10 「향적불품」, 제11 「보살행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이런 경전을 인쇄했는가를 알 수 있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유마경이 조선후기의 사회에서 불교의 사찰에서 만이 아니라 세속의 무속인들이 독송하는 종교적 권능을 가진 경전이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일제치하인 1916년에 불교진흥회가 창립되는데, 여기에는 각 본산의 주지승과 각 분야의 재가신자들이 동참하여 불교의 생활화를 주장하는데, 그들의 기치는 당연히 유마경의 유마거사가 이상적 불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능화는 전시대의 승려를 천시하는 풍토를 개선하여 재가불자들이 모두 유마거사가 되어 승단을 외호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마거사의 침묵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포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本會는 如是等方便으로 對治衆生之病이라 然而古之文殊菩薩은 以無言無說. 無示無識. 離諸問答으로 爲入不二之法門하며 古之維摩居士는 以默然無言乃至無有文字로 爲入不二法門矣나 今之文殊菩薩과 今之維摩居士는 乃以多言多說. 多示多識. 多諸問答. 多有文字로 爲入不二法門하니”<sup>32)</sup>

31) 아늑다라삼막삼보리의 경우 아늑다라삼막삼보리, 이룩다라삼막삼보리, 안육다라삼막삼보리, 안육다라삼막삼보등 통일이 되지 않고 쓰인다.

32) 李能和, 『佛敎振興은 三十菩薩과 無數維摩居士』, 『佛敎振興月報』 1호, 佛敎振興會, 1916.

하면서 새로운 불교진흥을 위해 재가불자들이 유마거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승가에서 만해 한용운 역시 대승경전 가운데 특별하게 유마경을 중시했고 불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승려의 결혼을 주장했다.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힐이야말로 한용운이 지향했던 이상적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유마경의 한글번역을 시도했는데 『유마힐소설경강의』는 유마경 전 3권 14 품중 제 6 『부사의품(不思議品)』에서 중단되었지만 이러한 번역과 강의는 진공묘유(眞空妙有)한 대승 사상의 구현에 목표를 둔 집념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며 새로운 관점에서 불전을 재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불교대전』에서 유마경의 『방편품』, 『부사의품』, 『보살품』 등 14품 중에서 그 정수들이 16회에 걸쳐 인용하고 있다.

한용운은 세상일에 무관심한 탈속적 불교에 대해 유마경 해석을 통해 비판하면서 사바세계야 말로 정토를 구현하는 바탕임을 역설하고 있다.

“중생을 떠나서는 따로 佛이 없으며, 穢土를 떠나서는 따로 정토가 없음을 보임이다. 일체 중생의 사는 곳이 정토 아님이 없느니 兩三茅屋의 산촌이 愚者를 변화시켜 哲人을 만들고, 調伏하여 선인을 만들면 一村의 桑麻土石이 仙樹樂土로 화할지니, 어떤 땅을 막론하고 그 땅에 사는 중생이 佛智에 들어가고 善根을 일으키면 땅에 따라 정토를 이룰지라. 만약 중생의 경계를 떠나서 따로 정토를 구하면 이는 허공에 宮室을 건조함과 같아서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sup>34)</sup>

유마거사의 병이 다른 이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처럼, 만해도 식민지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고통을 자청했고, 쇠락한 불교의 부흥을 위해 재래의 낡은 관습을 제거하고 새로운 근대적 불교운동을 모색했다.

33) 송혁, 『한용운 사상연구』, 『한용운사상연구』 권2, 만해사상연구회, 1981, 182쪽.

34) 『유마힐소설경강의』, 전집 3, 262쪽.

### 3. 결론

『유마경』은 중요한 대승경전으로 특히 반야 공사상과 불이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승단위주의 불교는 탈속적이고 자칫 재가불교를 세속적인 것으로 무의미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마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속과 탈속이 둘이 아님을 보이며, 그 가운데서 오히려 침묵을 통해 공의 진수를 보이기도 했다.

이 경전은 원효와 같은 탁월한 고승들이 관심을 가진 경전이었으며, 보살정신에 투철한 원효의 경우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자처함으로써 대중과 함께하는 거사불교를 중시했다. 석굴암의 여러 제자들의 상에서 문수와의 대화를 묘사한 병든 유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원효는 유마 거사처럼 재가불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화쟁사상과 불이사상으로 대승정신을 생활속에서 보여주었다. 이러한 원효의 사상을 높이 평가한 고려의 의천은 화쟁불교를 계승하였고, 보조국사 지눌 또한 유마경을 중요한 경전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재가 불자인 이통현의 화엄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성은 중생심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으며 대립된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유마경의 대승보살정신과 원효의 회통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역불승유의 조선시대 때도 유마경은 쉬임 없이 간행된 경전이다. 특히 조선후기 추사 김정희와 같은 재가자이면서도 불교수행에 관심을 가졌던 선비들은 유마경에 관심을 가졌고 그 자신이 유마거사의 화신처럼 살려는 의지를 가졌으며, 19세기에도 유마경은 한글본으로 출판되어 보급될 정도로 중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일제강점기의 만해 한용운에게도 이어졌으며 그가 보여준 적극적 현실참여는 당시의 다른 불자들과 비교되는데 이는 그가 유마경의 승속불이의 대승보살정신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천하는데서 기인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유마경』은 보살정신을 강조하는 사상적으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기원하는 민중들의 신앙에서도 영험이 있는 경전으로 간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승가뿐만 아니라 재가에서도 매

우 증시되는 경전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鳩摩羅什 譯 『維摩詰所說經』(大正藏 14卷).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卷1(大正藏 55卷).  
一然, 『三國遺事』.  
知訥, 『華嚴論節要』.  
普照,, 『圓頓成佛論』.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影印本).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卷19.  
李忠翊, 『椒園遺藁』.  
李令翊, 『信齋集』.  
梵海 撰, 김운세 역 『東師列傳』, 광제원, 1991.  
義天, 『大覺國師文集』(影印本), 景仁文化社, 1997.  
知訥, 『華嚴論節要』, 김지건 편, 흥법원, 1968.  
이영무, 『維摩經講說』, 월인출판사, 1989.  
통운 저, 일지 역, 『통운의 유마경 풀이』, 서광사, 1999.  
모리스 쿠랑(Mourice Courant), 이희재 역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reenne), 일조각, 1994.  
李能和, 『佛教振興은 三十菩薩과 無數維摩居士』, 『佛教振興月報』 1호, 佛教振興會, 1916.  
송혁, 『한용운 사상연구』, 『한용운사상연구』 권2, 만해사상연구회, 1981.  
김두식, 『유마경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65.  
강혜원, 『달마선에 나타난 유마의 不二사상』, 『韓國佛敎學』 26輯, 1995.  
이대성, 『유마경의 禪사상』, 『韓國佛敎學』 26輯, 한국불교학회, 1995.  
김용환, 『유마의 보살실천론과 생태위기극복』, 『국민윤리연구』 37號, 한국국민윤리학회, 1997.  
이선경, 『극양식으로 본 유마경의 등장인물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대성, 『유마경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재수, 『유마경에 나타난 사회사상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0.  
신규탁, 『이자현의 선사상』,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4.

- 정준기, 『유마경의 반야사상을 의용한 신회의 禪사상』, 『韓國佛敎學』 38輯, 2004.
- 김태오, 김병희, 『원효 무애행의 교육적 함의』, 『동서철학연구』 34호, 한국동서철학회, 2004.
- 주호찬, 『이규보의 시에 나타난 불교인식의 추이』, 『한문학보』 14호, 우리한문학회, 2006.
- 이애희, 『이자현의 능엄선 사상』, 『공자학』 14집, 한국공자학회, 2007.
- 임상희, 『이통현과 중국의 전통사상』, 『한국불교학』 50집, 한국불교학회, 2008.
- 최완수, 『석굴암, 중생의 해탈 염원 담긴 ‘대승불교의 꽃’』, 한국경제, 2009.9.28.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

**Abstract**

A Status of Vimalakīrti Sutra i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Lee, Hee-jae

The Vimalakīrti Sutra is an important book of Mahayana Buddhism about the concepts of emptiness and non-dualism. Monk-centric Buddhism tends to disregard the lay Buddhist. However, the Vimalakīrti Sutra shows equality between the Buddhist priesthood and the lay Buddhist. Vimalakīrti is a lay Buddhist awakened to the essence of emptiness.

This sutra was introduced as early as the Silla dynasty. The venerable Wonhyo(元曉, 617~686) had written commentaries about Vimalakīrti (Youmakyung Chonyo 維摩經宗要 and Youmakyung Yakchan 維摩經略贊). Wonhyo married Princess Youseok fathering Seol Chong from this union. Wonhyo looked upon himself as a lay devotee like a Vimalakīrti.

Seokgulam Cave in the Silla dynasty made a sick Vimalakīrti image talking with the Bodhisattva of wisdom, Moonsoo.

The venerable Uichon(義天, 1055~1101) in the Koryo dynasty follows from Wonhyo's idea. Further support is the venerable Bojo esteem of the Vimalakīrti Sutra as important.

This sutra is sustained through continued documentation in published books. The famous scholar, Kim Junghee(金正喜, 1786~1856), in the late Chosun dynasty showed his interest in the Vimalakīrti sutra in his expression of Vimalakīrti zen in his paintings.

The venerable Han Yongwoon(韓龍雲, 1879~1944) who lived during the Japanese imperial period regarded the Vimalakīrti Sutra as an essence of Buddhism thus engaging Buddhist concepts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Key words : Virmalakirti Sutra, Mahayana Buddhism, Non-dualism, lay Buddhist,  
Bodhisattva

소 속 : 광주대학교  
전자우편 : jrhee00@dreamwiz.com

투고일 09. 09. 30 / 심사완료일 09. 11. 2 / 게재결정일 09. 11. 10